

진보성향 노조 대치... ‘이정선표 교육정책’ 흔들

방학 중 무상급식 무산 홍역 치리
각종 교육정책 추진 시 제동 우려
실력광주·청사이전 순항 미지수

‘방학 중 무상급식’과 관련해 한바탕 홍역을 치른 이정선 광주시교육감이 취임 초반부터 동력에 생채기가 났다.
전국에서 처음으로 추진하려던 2호 공약인 무상급식은 공식 발표 나흘 만에 지역 교육단체 등에 반대에 부딪혀 당초 계획과 달리 결국 무산됐기 때문이다.

특히 전교조 12년 체제에 익숙한 상황인 만큼 교육청 안팎에서 이 교육감 ‘우군’을 찾기가 쉽지 않아 앞으로 교육 행정을 펼치는데 순탄치만은 않을 것이라는 시각도 적지 않다.
18일 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시교육청은 무상급식을 도입한다고 공식 발표한 지 나흘만인 지난 14일 돌연 직영 급식을 신청한 학교에만 무상급식을 하기로 계획을 변경했다.
여름 방학 중 초등학교 150개교 전체 1, 2학년 돌봄교실 참여 학생과 유치원 126곳 등을 대상으로 실시하려 했던 무상급식 정책을 지역 교육단체와 노조 등의 반대를 이기지 못하고 철회한 것이다.
시교육청은 일선 학교가 급식실 운영에 어려

움을 호소하고 코로나19 재유행과 식중독 등 여러가지 상황을 고려했다는 입장이지만, 일각에선 지역 시민단체와 소통 부재로 불거진 책임을 회피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온다.
또한 방학 중 무상급식 정책과 관련 학비노조, 광주 교사노조, 광주 교총 등이 ‘소통 없는 밀어붙이기 행정’이라고 주장하면서 민주노총까지 이 교육감의 정책에 대해 반대 입장을 표명한 만큼 향후 각종 정책 등을 추진할 때마다 제동이 걸리지 않을까 우려된다.
이와 관련, 이 교육감이 지난 6·1 교육감 선거에서 전교조 후보와 치열하게 경쟁해 ‘진보성향’의 이들 노조가 향후 4년간 ‘야당 역할’을 하면서 각종 교육 현안을 둘러싸고 교육청과

‘대치전선’을 형성하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따라서 이 교육감이 전교조 출신인 장휘국 전 교육감 12년 체제를 극복하고자 하려는 실력 광주 회복(정책 1호)과 시 교육청 청사 이전 등 각종 정책이 순탄하게 추진될 수 있을지 미지수라는 지적도 있다. 취임 초기부터 전교조를 비롯한 노조 등과의 관계가 벌써부터 틀어지고 있는 만큼 이 교육감의 리더십과 정치력이 벌써부터 흔들리고 있어서다.
전교조 12년 체제에 익숙해 있는 등 역동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는 교육청 공무원들 역시 이 교육감의 쇄신과 변화 구호에 적극적으로 발을 맞출 수 있을지도 이 교육감의 향후 행보를

가늠하는데 중요한 포인트다.
특히 이 교육감이 기존 비서실을 소통 1실과 소통 2실로 직제 개편하면서 교육 관련 노조와 단체, 언론, 학부모, 교직원 등과 소통하려는 ‘의지’의 일단을 내보이면서 소통실이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을지가 이 교육감 행보의 성패를 좌우하는 ‘리트머스 시험지’라는 평가도 있다.
소통1실장은 이 교육감 당선인 시절 인수위에 파견됐던 안형관 사무관이 맡고 있고, 소통2실장은 따로 없지만, 5급 별정직으로 채용된 이경산 전 전남일보 상무가 소통기획관을 맡고 있다.
광주 시민단체 관계자는 “방학 중 급식을 비롯한 주민직선 4기 교육정책들이 대개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불통 행정이다”며 “처음에 공약을 100이라고 생각했으면, 강약 조절도 필요하고 지역 사회와 대화와 논의를 통해 타협점을 찾는 소통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최환준 기자



코로나 예방접종 50대 연령층에 대한 코로나19 4차 백신 접종이 시작된 18일 오전 광주시 북구 중흥동의 한 병원에서 50대 북구청 공직자가 백신 접종을 받고 있다. /김태규 기자

광주 감염 재생산 지수 1.33
11~17일까지 평균 774.4명

광주에서 코로나19 주간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감염 재생산 지수도 치솟고 있다.
18일 광주시에 따르면 지난 11일부터 17일까지 광주 확진자는 모두 5,421명으로 하루 평균

774.4명이다. 바로 전주인 4일부터 10일까지 2,279명(하루 평균 325.6명)의 2.4배다.
감염 재생산 지수는 5월 말 0.77명이었지만 6월 말 1.0으로 오른 뒤 이달 들어서는 9일 현재 1.26, 18일 현재 1.33으로 상승했다.
대규모 집단 감염사례가 발생하지 않았는데도 확진자 수와 감염 재생산 지수는 꾸준히 올랐다.

발생 연령대는 5월까지 60대 이상 고령자가 20% 안팎으로 가장 높았으나 6월에는 20대가 20%가량으로 늘었으며 이달 들어서는 10대와 20대가 각각 19.1%, 18.1%를 기록했다.
광주시 관계자는 “50세 미만은 3차 접종, 그 이상과 18세 이상 기저질환자 등 고위험군은 4차 접종, 고위험군 소아는 기본 접종에 적극적으로 참여해달라”고 당부했다. /임채민 기자

“사립유치원 교원 육아휴직, 1,361명 중 6명뿐”

시민모임 “신분 유지 사용 못해”

광주지역 교육시민단체가 사립유치원 교원들의 육아휴직 복지에 대한 지원책 마련을 촉구했다.
18일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에 따르면 올해 사립유치원 교원 1,361명 중 6명(0.44%)이 육아휴직을 사용했다.
사립유치원 144곳 중 5곳(3.47%)만이 육아휴직을 실시했다.
사립유치원은 사립학교법 개정에 따라 지난 3월부터 공립유치원 교원이 받는 육아휴직 수당 1185만원이 지원된다.
시민모임은 육아휴직 등 지원책이 안착될 수 있도록 시교육청에 대책 마련을 촉구한 바 있지만, 교원들 사이에서는 현실과 거리가 먼 탁상

행정이라는 지적이다.
인사권자인 원장이 교원들의 육아휴직을 불허하거나 허가 시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는 입장이다.
시민모임은 “사립유치원 교원들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을 따르는 교원임에도 법인 설립자나 원장과 직접 근로계약을 맺는다”며 “대부분 1년 계약을 갱신하고 있어 대다수 교원은 신분을 유지하기 위해 휴직 사용을 염두도 못 내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공립에 비해 사립유치원 교원 1인이 담당하는 원아도 많고 근로 시간도 길어 사직 또는 이직을 고려하는 교원이 상당하다”며 “지금이라도 원아들이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원들에게 합당한 대우를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임채민 기자

북구, ‘민생경제 상생 도약’ 간담회

광주시 북구가 코로나 팬데믹을 비롯해 금리, 환율, 물가의 동시 상승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상생의 의지를 다지는 자리를 가졌다.
18일 북구에 따르면 소상공인 관계자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민생경제 상생 도약 소상공인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북구 소상공인연합회, 전통시장·전문상점가, 골목형상점가·상가변영회, 업종별 협회 등 18개 기관·단체 대표 등이 참석했다.

북구는 새롭게 출범한 민선 8기 북구와 광주시의 민생경제 안정 대책, 공약과제 추진계획, 지원사업 등을 자세히 설명했다.
또한 소상공인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등 실제 경영 현장의 분위기를 파악하는 데 집중했다.
특히 북광주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미소금융 광주북구법인, 신용회복위원회 광주지부 관계자도 참석해 각 기관에서 진행하고 있는 소상공인 지원사업을 알기 쉽게 안내했다.
/최환준 기자

장성 토지(매매, 분양)	상무지구(상가매매)	경매교육 [특수전문반 기초반,중급반]						
광주에서 20분 (6M도로인접) 장성댐 (호) 2분, 장성 IC 5분 총 1760평 (150평, 200평, 500평, 분할가능) [전원주택,물류창고,주말농장,별장,투자적합]	1) 감평가 (시세) 9억 매매가 7억 (용4억가) 2) 월수익 350만 (보4천) 3) 평수140평, (전용100평) 사무실, 빠, 유흥주점, 모든업종가 (즉시입주가,시비없음,시설완비)	1) 특수반모집 → 유치권, 법지, 지분, NPL(전문) 2) 전문반모집 → 직업으로 하실분 (경매 배우면서 수익가능) 3) 기초반, 중급반, 특수반 ⇒ 평생 회원반 <table><tr><td>광주</td><td>광산구 생암동(근린상가) ▶ 감평가 5억1천 → 최저가 3억6천 (7/14) 광산구(근린상가) ▶ 감평가 2억1천 → 최저가 1억5천 (7/27) 광산구 장덕동(아파트) ▶ 감평가 4억5천 → 최저가 3억 1천 (8/04) 서구 매월동(임야) ▶ 감평가 6억2천 → 최저가 3억5천 (8/03) 북구 용봉동(근린상가) ▶ 감평가 32억 → 최저가 18억 (8/04) 서구 처평동(근린상가) ▶ 감평가 6억2천 → 최저가 3억5천 (8/3) 동구 윤림동(근린주택) ▶ 감평가 6억4천 → 최저가4억5천 (5/26)</td></tr><tr><td>전남</td><td>장성군 서삼면(농지) ▶ 감평가 1억4천 → 최저가 8천(8/03) 담양군 대덕면(임야) ▶ 감평가 5억2천 → 최저가 3억7천 (8/3) 나주시 빛가람동(근린상가) ▶ 감평가 3억2천 → 최저가 1억1천 (8/3) 담양군 월산면(임야) ▶ 감평가 4억7천 → 최저가 3억3천 (8/3)</td></tr><tr><td>시외</td><td>경남 김해시(숙박시설) ▶ 감평가28억 → 최저가 14억 (7/22) 전남 영암군(근린시설) ▶ 감평가 6억4천 → 최저가2억8천(7/19)</td></tr></table>	광주	광산구 생암동(근린상가) ▶ 감평가 5억1천 → 최저가 3억6천 (7/14) 광산구(근린상가) ▶ 감평가 2억1천 → 최저가 1억5천 (7/27) 광산구 장덕동(아파트) ▶ 감평가 4억5천 → 최저가 3억 1천 (8/04) 서구 매월동(임야) ▶ 감평가 6억2천 → 최저가 3억5천 (8/03) 북구 용봉동(근린상가) ▶ 감평가 32억 → 최저가 18억 (8/04) 서구 처평동(근린상가) ▶ 감평가 6억2천 → 최저가 3억5천 (8/3) 동구 윤림동(근린주택) ▶ 감평가 6억4천 → 최저가4억5천 (5/26)	전남	장성군 서삼면(농지) ▶ 감평가 1억4천 → 최저가 8천(8/03) 담양군 대덕면(임야) ▶ 감평가 5억2천 → 최저가 3억7천 (8/3) 나주시 빛가람동(근린상가) ▶ 감평가 3억2천 → 최저가 1억1천 (8/3) 담양군 월산면(임야) ▶ 감평가 4억7천 → 최저가 3억3천 (8/3)	시외	경남 김해시(숙박시설) ▶ 감평가28억 → 최저가 14억 (7/22) 전남 영암군(근린시설) ▶ 감평가 6억4천 → 최저가2억8천(7/19)
광주	광산구 생암동(근린상가) ▶ 감평가 5억1천 → 최저가 3억6천 (7/14) 광산구(근린상가) ▶ 감평가 2억1천 → 최저가 1억5천 (7/27) 광산구 장덕동(아파트) ▶ 감평가 4억5천 → 최저가 3억 1천 (8/04) 서구 매월동(임야) ▶ 감평가 6억2천 → 최저가 3억5천 (8/03) 북구 용봉동(근린상가) ▶ 감평가 32억 → 최저가 18억 (8/04) 서구 처평동(근린상가) ▶ 감평가 6억2천 → 최저가 3억5천 (8/3) 동구 윤림동(근린주택) ▶ 감평가 6억4천 → 최저가4억5천 (5/26)							
전남	장성군 서삼면(농지) ▶ 감평가 1억4천 → 최저가 8천(8/03) 담양군 대덕면(임야) ▶ 감평가 5억2천 → 최저가 3억7천 (8/3) 나주시 빛가람동(근린상가) ▶ 감평가 3억2천 → 최저가 1억1천 (8/3) 담양군 월산면(임야) ▶ 감평가 4억7천 → 최저가 3억3천 (8/3)							
시외	경남 김해시(숙박시설) ▶ 감평가28억 → 최저가 14억 (7/22) 전남 영암군(근린시설) ▶ 감평가 6억4천 → 최저가2억8천(7/19)							
010-6670-9800 (062-382-5500)								